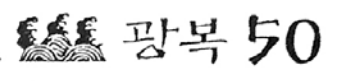


btn 선정 불교 50대 사건



특집

시집 다수 간행.
 ◊조오현: 60년대 시집 '심우도' 등 냈으며 71년 과거사에서 성우·정후·향봉님과 '승려시집' 발간. 이 영향으로 승려문인들의 모임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박희진: 55년 등단. 선(禪) 적인 풍의 사행시 창작으로 시단의 주목을 받고있다.
 ◊신현득: 창작 동시집 '고구려 아이' 동화집 '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다수 불교아동문학의 길 개척.
 ◊김성동: 화제작 '만다라'에서 수행의 참면모를 제시 주목을 받았고, 불교소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남지심: '연꽃을 피운들' '우담바라(전4권)' '새벽하늘에 향 하나를 사르고' 등을 발표해 불교소설의 영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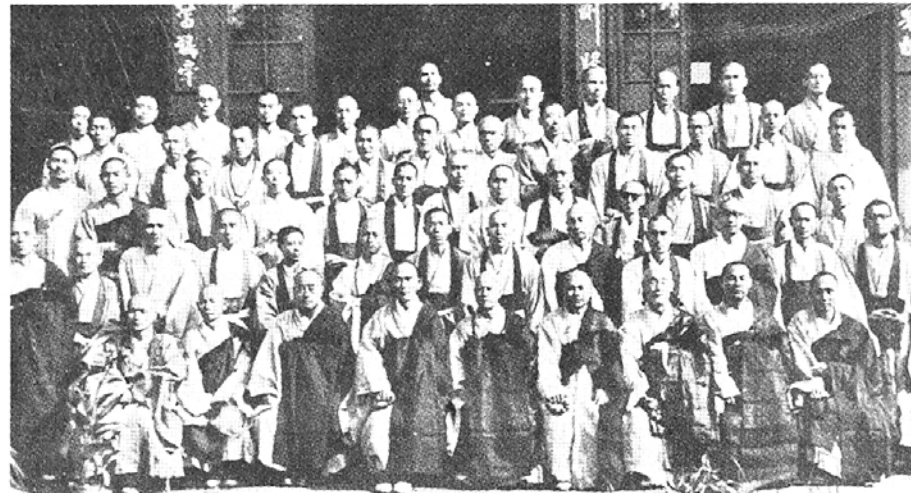
◊종광스님: 국내외에 수차례 개인 초대전 개최. 선풍에 대한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서세옥: 61~82년 국전 심사위원 서울대 미대학장 역임, 개인전, 단체전 외에도 잡지 표지화를 통해 독특한 화풍선양. 선풍풍의 작품으로 화단에 영향을 미쳤다.
 ◊전영화: 국전 초대작가. 불교정서의 한국화로 각광. 손연철, 윤광조, 이왕중, 유종민, 박찬갑, 김영중, 강대철, 강행복, 강행원, 정경연 등 80여 화인과 93년에 불교미술협회 창립.

영화·연극

◊신상옥: 57년 '무명탑'을 제작 불교영화의 막을 올렸다. 이후 58년 '지옥화' 67년 '꿈' 제작.
 ◊한갑진: 79년 영화 '불만대장정' 제작 이후 불교영상제작에 심취 비디오 '한국의 불교' '스리랑카'와 '석굴의 직관' 불교입문서 등 많은 교리해설서, 번역서도 펴냈다.
 ◊이봉선: 91년 불교포교전문극단 '종' 창립. '서천꽃밭' '사모곡' 등 전국 순회무대에서 공연.
 ◊이문택: 81년에 영화 '만다라'로 불교영화의 비람을 일으켰다. 84년에는 '비구니' 제작을 주도하자 했으며 88년에는 '아제야제 바라야제'를 제작 불교영화의 전성기 구가.
 ◊유승업: 81년 창작뮤지컬 '님의 침묵' 공연.
 ◊김상열: 91년 뮤지컬 '무애가' 등 발표. 구룡사에 극단 '신시'를 개설. 대표로 사찰극단의 창신성 심기에 성공.
 ◊이민희: 90년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92년 '피고지고 피고지고' 등 격조높은 불교회극 창작. 강연결체 연출로 공연. 불교연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지용, 김양민, 장선우, 박철수: 신에 감독들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우담바라' '화엄경' '오세암' 등을 제작해 불교영화의 물결을 꾸준히 이끌었다.

음악

◊송암스님: 범패 인간문화재(50호). 불교 전통음악 전수를 위해 수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장병우 이일웅 정지광스님 등과 함께 활동.
 ◊윤문스님: 64년 12월 찬불가, 등요집 간행. 조계사, 석불사, 연화어린이 합창단 결성. 많은 찬불동요가사를 써서 작곡을 의뢰했다.
 ◊최영철: 71년 찬불가 공모전에서 최초의 의식 찬불가 '삼귀의' '사홍서원' 당선. 2백여편 이상 창작(최영철 작곡집)도 냈다. 대전지역에서 많은 사찰합창단 지도.
 ◊서창업: 74년 불교음악 연구원 설립. 76년 <찬불가 100곡집> 발간. 89년 타계하기까지 일상동안 찬불가 작곡과 합창단 육성 등 찬불가 보급에 헌신.
 ◊김영호: 83년 '새 찬불가' 발간. 의식곡과 찬불가곡들을 내놓으며 사찰 합창단 양성에 힘썼다.
 ◊박범훈: 73년 '사(死)의 승무' 첫선 보인 이후 불교 무용곡 '하안초상' (88년) 발표. 불교교곡 '붓다' '보현행원승' 등 대국발표
 ◊정부기: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교향곡 '붓다의 노래'를 비롯 '예불' 등 찬불가의



◊ 1964년 5월 이승만대통령이 불교정화 유시를 내리자 효봉·승산·청담스님 등 당시 비구대표들은 54년 8월 25일 선학원에서 제1차 비구승 대표자대회를 소집 정화불사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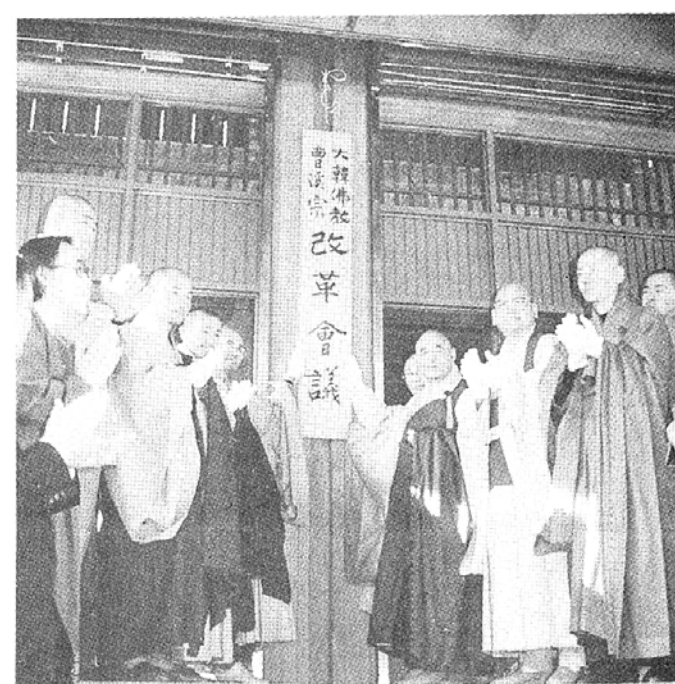


◊ 한국불교 1600년 사상 최초로 1961년 운허스님이 불교사전을 펴냈다. 이어 72년 동국대경원에서 불교성전을 간행 불교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정화·분규·법난속 '연꽃 피우기'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1945.8.20) 김법린 허엽 스님들이 태고사(현 조계사) 종단 운영권을 인수 받음. 한국불교의 자주화와 왜색불교 척결의 태동을 의미하는 사건.
 ◊사찰령, 31분발사법 폐지 결의(1945.9.22) 일제시대 때의 불교 약법이었던 사찰령의 폐지는 곧 왜색 불교의 폐지와도 같았다.
 ◊불교혁신을 위한 선학원 불교도 대회(1947.5.13) 광복 이후 식민 잔재의 청산과 민족 불교 전통수립의 첫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진보적 스님들과 지식인층이 연합한 교단 혁신운동.
 ◊임시 총무원 부상으로 이전(1950.6.26) 한국전쟁으로 인한 총무원 이전.
 ◊동국대학교 승격인가(1963.2.6) 1906년 진보적 불교 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명진학교에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승격.
 ◊이승만 대통령 불교 정화 유시(1964.5.21) 8차례에 걸친 정화 유시는 불교 내부의 자율적 정화에 정권이 개입된 사례.

비구·대처 간의 분규 일당락.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1963.9.22)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연합형태를 갖춤.
 ◊대한불교 청년회 발족(1963.10.26) 달마회 등과 함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해 불교단체 등록.
 ◊종비생제 실시(1964.2.15) 종단에서 스님들의 학비 일체를 보조.
 ◊동국대 경원회 개원(1964.7.21) 통합종단 3대 사업의 하나인 경원사업의 터전이 될 동국대 경원회가 설립돼 경원변역의 토대 마련.
 ◊무문관 6년 결사(1965.12) 당시 종단의 어지러운 상황으로 선승들이 모여 정진결사.
 ◊청소년교회연합회 창설(1966.5.15) 어린이에 대한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청소년교회연합회로 명칭 변경.
 ◊우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1966.8.13) 세계 최초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우리 인쇄술의 세계적인 가치 선양.
 ◊W.F.B.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1966.11) W.F.B. 세계불교도 우의회 정



◊ '조계종의 불'이라고까지 불린 지난해 조계종 개혁은 관제·어용불교를 없애고 불교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사부대중의 전폭적인 동참과 지지를 통해 개혁중단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3일 거행된 개혁회의 현판식.

신도조직 정비... 불교방송·TV 포교혁명

'비구 할복' '10·27' 기억 생생... 승려대회도 잦아

◊태고사 강제 접수(1954.11.10) 두 차례에 걸친 전국 비구승 대회 이후 태고사(현 조계사) 정거.
 ◊전국 신도회 조직(1956.6.16) 재가 불자들의 조직적인 신앙 생활과 포교의 일환으로 발족.
 ◊불교신문 창간(1960.1.1) 불교계 최초의 신문인 불교신문(당시명:대한불교) 창간.
 ◊정화 6비구 할복 기도(1960.11.25) 4·19 혁명 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더불어 대법원의 비구승 승소 파기에 항의.
 ◊불교사전 출간(1961.5.22) 한국불교 1600년 사상 최초로 한글판 불교사전이 출간됨. 역경사업에 공생을 바친 운허스님의 개인적 노력과 종단의 지원으로 간행된 이후 역경, 포교 및 교육 등에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교문화연구원 설립(1962.3.5) 불교 문화의 학문적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동국대학교에 설립.
 ◊불교재산 관리법 제정(1962.5.31) 불교재산 관리법은 전문 4장 19조, 부칙으로 구성.
 ◊동학합단의 출범(1962.4.11)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불교정화에 대한 담화 발표이후 통합종단 출범. 지루했던

식 회안국으로 가입.
 ◊군중장교 5명 입관(1969.11.30) 김덕수 법사 등 5명, 군포교의 교무보 마련.
 ◊봉은사 임야 10만3천여평 매각(1970.1.27) 총무원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봉은사 임야 매각.
 ◊제1회 불교미술공모전 개최(1970.7.13) 한국 문화에 기반이 된 찬란한 불교미술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불교문화실현의 취지로 불교미술 공모전 개최.
 ◊삼귀의·사홍서원 찬불가 제작(1971.5) 공모전에서 최영철씨의 곡이 선정됨. 의식 찬불가의 양산 계기.
 ◊불교성전 출간(1972.11.30) 위운 불교로의 정진을 위해 동국대경원에서 출간.
 ◊한국 불교회회 창립(1973.9.7) 불교회계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
 ◊월간잡지 '법륜' 창간(1974.11.1) '법시' '법론' 등과 문자포교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1975.1.14) 서울대중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 구성. 용태영 변호사가 앞장.
 ◊대한불교 진흥원 설립(1975.8.16) 설립자 대인 장경호 거사.
 ◊김대식 종관합회 기도(1975.12.26) 조

계종 종단 최초의 종관위원회.
 ◊조계종 3년 분규(1977.7) 조계사와 개운사로 종단집행부 양분.
 ◊10·27 법난(1980.10.27) 3년 분규 이후 통합되어 일주 총무원장을 선출한후 자율성회의 움직임 과정에서 일어난 군의 불교유린사건.
 ◊단일계단 수계신설 실시(1981.2.27) 불교계 최초로 조계종단 차원에서 수계식 거행.
 ◊비상종단 출범(1983.8.6) 신홍사 주지 싸움으로 인해 종단이 혼란에 빠짐.
 ◊민중불교운동연합 발기(1985.5.4) 민중불교의 개념이 확립되며 불교 민중운동의 싹이 틔. 여익구씨가 초대회장.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1986.9.7) 2천여 승려 운집. 10·27 규탄 및 관계 약법 철폐요구.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소식(1986.12.6) 보물 476호. 불상, 오백나란등도 함께 소실. 성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경승단 발족(1987.1.24) 경승활동의 시작으로 불교사회운동의 영역 확대.
 ◊전통사찰보존법 제정(1988.5.28) 불교 재산관리법의 폐지로 새로이 전통사찰보

존법이 제정.
 ◊한국불교전서 원간(1989.11.25) 한국 불교학 연구분야의 최대성과로서 한국 전통사찰의 재확립과 연구의 초석 마련.
 ◊중앙승가대 각종 학교인가(1990.2.28) 승가교육의 새로운 형태 갖추기 시작.
 ◊선우도량 결사(1990.3.7) 청정승가상 확립과 구세정신을 기반으로 한 소장승려들의 결사.
 ◊불교방송 개국(1990.5.1) 세계 최초의 불교방송이 개국됨에 따라 전파포교의 막이 올랐다. 가경권은 당시 서울·경기 일원.
 ◊제17차 세계 불교도대회 개최(1990.10.22) '화해와 인류평화'를 주제로 열림.
 ◊남북불교지도자 LA 연석회의(1991.10.29) LA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불교지도자들이 만남.
 ◊성철 큰스님 임직(1993.11.4) 모범적인 수행상을 보인 스님의 임직과 수행담은 연일 국내 최대 뉴스로 보도됐다.
 ◊법종단개혁추진회(1994.3.23/4.13)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저지한 개혁세력이 종단개혁 주도.
 ◊불교TV 개국(1995.3.1) 영상포교의 대전환 마련하는 계기가 됨.



찬불가 제작 보급등 몸바쳐 원력 불사 문학·선서화 대중문화 현장으로 확산

새장을 여는 많은 곡을 발표했다. 93년에 안병길씨와 공동작업으로 1천여곡의 불교음악을 정리한 '찬불가전집' 전9권 발간.
 ◊김동환: 반야심경 관곡 등. 90년부터 불교 방송 찬불가 100곡 제작 5년사업에 동참. 이 작업에는 불심있는 일반 작곡가 대거 참여.

언론

◊이희상: 64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 불교' 운영권을 인수받아 불교언론의 새 장을 열었다. 70년 삼보법회를 발족, 삼보강화회도 설립 후학육성에 힘을 쏟았고 말년에 미국에 삼보사를 설립 해외포교에 주력.
 ◊장상문: 부친 장경호씨의 원력을 이어 90년 세계유일의 불교방송을 개국, 한국포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대중불교 전신인 대한 회보(85)와 월간 굴림화어린이를 창간(90)했으며, 89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역임.
 ◊태웅스님: 다매체시대 불교TV개국으로 불교영상포교의 장을 열었으며 현재 대표 이사로서 재직. 통도사 주지 역임.
 ◊정후스님: 78년 불교신문 편집국장, 주필을 거쳐 현재 동신문 사장으로서 재직중인 불교언론의 산증인. 주간불교와 범보신문을 창간했으며 불교방송 개국에도 전력. 상무를 역임했다. 소설, 산문집, 고승경전 등을 펴내기도 했다.

미술

◊안봉스님: 73년 주요무형문화재 48호 단장장에 지정. 89년 팔승기념전시회등 전시회 개최, 전국 유수 사찰 단장직업. 후학양성에도 주력. 원덕문스님과 당대 최고의 단장장.
 ◊석정스님: 68년 동아국제미술전에 입상하면서 선서화의 대중화 길을 열었다. 92년 단장장 기능보유(인간문화재).
 ◊권정화, 권정화: 형제 모두가 불교 전통 예술에 입문, 이들은 70년 첫 불교미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건강을 지키는 - **동아제약**

타우린

1,000mg 함유

자연재활용을 위해 병뚜껑을 금속테우리가 남지않는 Split Cap으로 교체했습니다.

왜 박카스는 피로회복에 좋은가?
 박카스 한병에는 타우린과 카르니틴 그리고 5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효능·효과: 육체피로, 영양강장 허약체질

●용법·용량: 성인 1회1병(100ml), 1일1회 복용.
 ●표준소매가격: 1병 330원

타우린함유 **박카스** 에프 의약품